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0.5장~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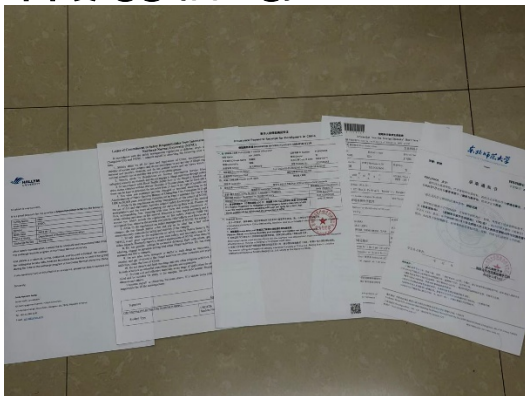
한림대학교에서 발급받은 교류 교육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유학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담은 유학생 안전 책임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국 비자 신청에 필요한 비자 신청서(DQ Form)를 준비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서류로는 동북사범대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림대학교 국제처에서 발급한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였다.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림대학교 국제처를 통해 교환학생 선발에 합격한 이후, 동북사범대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소개 자료와 함께 이후 진행해야 할 절차(비자 신청 방법, 학교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이후 동북사범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가 발송되었으며,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DQ(Visa Application Form for Study in China)를 발급받았다.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이후에는 동북사범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안내된 방식을 통해 정식으로 학교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한림대학교에서 동북사범대학교로 파견되는 학생이 본인 한 명뿐이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지할 동료가 없었다는 점이다. 서류 준비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도 같은 학교로 가는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상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스스로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이 컸다. 또한 모든 서류 안내와 행정 절차가 중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어 용어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입학허가서 발송 시점이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 비자 신청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도 어려웠다. 서류 제출 후 학교 측의 회신이 늦어질 때마다 출국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혼자 준비하는 상황일 수록 학교 국제처나 현지 대학 담당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 비자 및 항공 (0.5~1장)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X2 비자(단기 유학 비자, 6개월 이하의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과정에 발급되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동북사범대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와 JW202 표(외국인 유학 비자 신청서, DQ Form)를 수령해야 하며, 이 두 서류는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이다. 이후 여권,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입학허가서 원본, JW202 표 원본 등을 구비하여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비자 발급 대행 센터를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였다.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서류 접수 시점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 취득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입학허가서와 JW202 표(DQ)에 기재된 정보(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학교명 등)가 여권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재발급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X2 비자는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지 공안국에 거류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비자의 유효기간과 입국 가능 기간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자 신청 센터의 운영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방문 전 헛걸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수업 정보 (1장)



동북사범대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독해(精读), 듣기(听力), 말하기(口语)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외에 선택 과목으로 HSK 3급 단어(HSK词汇)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였다. 먼저 독해 수업은 본문에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와 문법 표현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단순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단어와 문법을 활용하여 짧은 듣기 자료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거나, 배운 표현을 직접 말로 사용해보는 활동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독해 수업 안에 듣기와 말하기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일종의 종합적인 성격의 수업이었다. 듣기 수업은 말 그대로 다양한 주제의 음성 자료를 듣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수업으로, 일상적인 대화부터 인터뷰, 짧은 뉴스, 사회 현상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의 자료를 들으며 듣기 실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말하기 수업은 그야말로 수업 시간 내내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는 수업이었는데,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이야기 하거나 짝을 이루어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표현을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어 사용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HSK 3급 단어 수업은 HSK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어휘들을 중심으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물론, 실제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이었다.

수업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각 수업은 대략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같은 반 안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다 보니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가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이 간절했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는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활기가 넘쳤다. 또한 수업 중 다른 나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거나 자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단순히 중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문화와 생각하는 방식을 접할 수 있었던 점도 이 수업만의 큰 장점이었다. 전반적으로 수업은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수업강도와 어학 능력 요구도에 대해서는, 우선 각 과목은 한 번에 1시간 30분씩 진행되었으며 모든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중국어로만 이루어졌다.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수업 내내 중국어로만 설명을 진행하셨고,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나 개념이 나올 때에만 아주 가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영어로 짧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정도였다. 처음에는 모든 설명을 중국어로 듣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는 듣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어학 능력 요구도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중국어 실력만 갖추고 있어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입학 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에 맞는 반으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급 수준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수준에 맞는 반에서 무리 없이 수업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1~2장)



동북사범대학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캠퍼스 규모 자체가 상당히 넓어,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의 작은 도시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받았다. 교내에는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

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환학생 기간 동안 캠퍼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다.

먼저 생활의 거점이 되는 유학생 기숙사는 총 20층 규모의 고층 건물로, 교환학생과 유학생, 그리고 본과생까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각 방은 1인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층마다 공용 주방과 공용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큰 장점으로, 복도나 주방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국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강의가 이루어지는 유학생 강의실 건물 역시 총 20층 규모로, 최신 시설을 갖춘 강의실들이 층마다 배치되어 있다. 냉난방 시스템과 음향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중국 명문 사범대학답게 방대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열람실과 그룹 스터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시험 기간에는 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 조용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 덕분에 수업 준비나 과제를 할 때 즐겨 찾는 공간 중 하나였다.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설 중 하나는 단연 교내 마트이다. 단순히 식품만 파는 곳이 아니라, 건물 안에 세탁소, 네일샵, 과일가게, 프린트샵, 카페 등이 함께 입점해 있어 생활 전반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공간에 가깝다.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대에는 항상 학생들로 북적이며, 교환학생들도 이곳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잠깐의 여유를 즐기곤 한다.

식사는 캠퍼스 내 두 곳의 학생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남방식당과 북방식당으로 나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각각 중국 남방과 북방의 요리 스타일을 반영한 메뉴를 제공하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남방식당이 훨씬 인기가 높아 점심시간이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한다. 가격은 매우 저렴하면서도 메뉴 구성이 다양하고 양도 넉넉해, 한국과는 다른 중국 음식 문화를 매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스포츠 시설도 인상적이었다. 교내에 대형 헬스장이 있는데, 인기가 워낙 많아 기구를 이용하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이다. 그 외에도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이 각각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시간대에 가도 운동을 즐기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특히 중국 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한 가지 독특한 시설로는 교내 공용 사우나를 꼽을 수 있는데, 주말이 되면 목욕 바구니를 들고 사우나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한국과는 사뭇 다른 중국 대학 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교환학생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중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학생들과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중국 학생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교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동북사범대학교 뿐만 아니라 길림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등 장춘 내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

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우리 조는 한국인 3명과 중국인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만나는 날마다 1~2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류가 진행되었다. 미션의 내용은 장춘의 유명 명소에서 단체 사진 찍기, 빨간색 배경 앞에서 사진 찍기, 동물원에서 판다 보기, 벚꽃섬 방문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단순한 대화 모임이 아니라 함께 장춘 곳곳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한 덕분에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 덕분에 매번의 만남이 즐겁고 배움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공식 문화교류 일정 외에도 조원들끼리 따로 약속을 잡아 함께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는 등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경험은 교환학생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학교 주변 지역 역시 교환학생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 요소 중 하나이다. 캠퍼스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는 구이린로(桂林路) 시내가 위치해 있는데, 장춘 내 대학생들이 주로 즐겨 찾는 젊은 감각의 변화가이다. 다양한 맛집과 트렌디한 카페,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으며, 밤이 되면 야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저녁 시간대에 특히 활기가 넘친다. 쇼핑과 식도락, 산책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수업이 없는 날이면 친구들과 자주 나들이하던 곳이다.

동북사범대학교 북문에서 불과 1분 거리에는 규모가 큰 동물원이 있다. 판다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으며, 매일 밤 퍼레이드와 수십 개의 공연이 진행되어 상시 관람객으로 북적인다. 앞서 언급한 문화교류 미션 중에도 이 동물원에서 판다를 함께 보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학교 근처에는 남호공원(南湖公园)도 있는데, 넓은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로와 피크닉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기에 제격이다. 공원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여 춤을 추는 광경은 중국 특유의 공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처음 보았을 때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했다.

5. 홍보 (0.5장)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현지 학생들에게 한림대학교를 소개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겼다. 한중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 대학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한림대학교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강원도 춘천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생활하기 쾌적한 캠퍼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인 만큼 반응도 좋았고, 교환학생 지원 방법이나 생활에 대해 더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다.

또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한림대학교를 언급하며 소개할 수 있었다. 거창한 홍보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소소한 소개였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한림대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6. 자기평가 (1~2장)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 걱정이 훨씬 앞섰다.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아 언어적으로 자신이 없었고, 한림대학교에서 혼자 파견되는 것이라 의지할 동기도 없었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졌고, 출발 전까지도 마음 한켠이 내내 심란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니 학교 등록 절차를 밟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살짝 벅차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러시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일본인 친구들도 사귀면서 생활이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중국에 왔지만 중국 친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류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이 하루하루 쌓여갔다. 그렇게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매일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다. 특히 중국 문화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생활 속에서 제대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식문화, 사람들의 생활 방식, 대학 캠퍼스 문화까지,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결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중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주말마다 장춘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분위기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몸소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돌아보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히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홀로 던져지는 경험 자체가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된다. 의지할 사람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 처음에는 작은 행정 절차 하나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과정은 시야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나라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했다면 결코 가질 수 없었을 넓은 시각이 생긴 것이다. 나아가 외국어 실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교환학생의 효과는 분명하다. 수업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실력이 늘고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과 세계관의 확장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경험을 해보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파견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이른 아침 수업이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오전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평소 잠이 많은 편인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패턴이 중국에

와서도 쉽게 바뀌지 않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려니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내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 자체가 꽤 힘들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면서 점차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8시 수업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이 주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환경이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적응이란 결국 시간과 노력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